

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 연구결과 및 운영 방향

배기화

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

Research Results and Operation Direction of Ex-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for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

Kee Hwa Bae

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, Sangju 37242, Korea

본 발표는 국가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그간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것이다.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·식물을 서식지외에서 체계적으로 증식·보전할 수 있도록 연구경험, 인력, 시설 등이 갖추어진 연구기관을 심사해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지정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이다.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3년간 멸종위기식물 4종(섬개현삼, 분홍장구채, 대청부채, 큰바늘꽃)과 일반식물 1종(고란초)의 현장관리 및 증식연구 등을 통해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현장평가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2018년 1월 30일 지정서를 교부받았다.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.

주요어: 서식지외보전기관, 멸종위기종,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

[본 연구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“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”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.]